

北 “장거리 로켓 발사”...정부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김정은 생일 16일 발사 유력

한·미·일 “안보리 결의 위반”

“중대한 위협” 강력 대응 경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3일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는 해군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만약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경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이런 내용의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발사는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北 미사일 대응 부주한 일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최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한 대응이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발사대가 지난 30일 도쿄 방위성 청사 부지안에 배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발사를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실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비난했다.

한·미·일은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까지 가용한 탐지 전력을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 배치 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500km)과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총동원 중이며, 사해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이지스 구축함(탐지거리 1000km) 2척을 배치했다.

미국은 조기경보위성(DSP)과 우주기반 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 KH-11, KH-12 첩보위성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추진체가 낙하시 요격이 가능한 ‘SM-3’ 대공미사일(사거리 500km)이 탑재된 이지스함 기리시마호를 출항시켰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까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다섯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조악한 수준이지만 인공위성을 궤적에 올리면서 발사시험에 성공한 것은 2012년 12월 은하 3호가 유일하다.

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美 “북한, 무책임한 도발 행동”

국제사회에 압박 촉구

미국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인 4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며 “핵실험 직후 서먼사 파워 주 유엔 대사가 언급했듯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부과하고 이미 채택된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엄격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신속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 전문가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적시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오와 코커스 ‘힐러리 승’ 공식 확인

샌더스, 재검표 요구할 듯

미국 대선 경선 첫 관문인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州) 민주당 코커스(당원 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민주당이 2일 공식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내 99개 카운티 1683개 기초선거구에서 실시된 코커스의 최종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49.8%,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49.6%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집계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득표비례제에 따라 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오와 대의원 44명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이 23명, 샌더스 의원이 21명을 각각 나눠 갖게 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전체 대의원은 4763명으로, 이중 과반인 2382명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대선후보 지명을 받게 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당 지도부와 주지사, 연방의원 등 경선과 관계없는 자동직 대의원인 슈퍼대의원 362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확보한 대의원 숫자는 총 385명이다. 샌더스 의원은 기존 슈퍼대의원 지지표 8명에 이번이 21명을 더해 총 29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샌더스 의원 캠프는 ‘힐러리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재검표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당사자인 샌더스 의원은 2일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떠났지만, 아직 자신의 패배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예상 궤도 ‘서해→제주→필리핀 해상’

북한이 지난 2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우리나라 서해, 제주도 남서 해역, 필리핀 루손섬 앞 태평양 방향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로켓 발사 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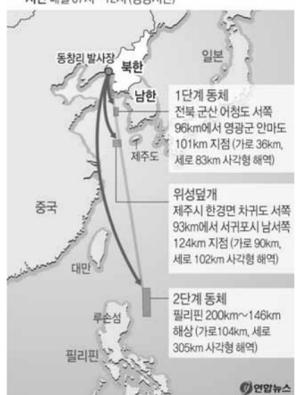
아울러 운반로켓전해 낙하예상구역에 대해 1단계 동체는 위도 36도 04분, 경도 124도 30분 등 4곳을, 로켓 첨단부(Fairing)는 위도 33도 16분, 경도 124도 11분 등 4곳을, 2단계 동체는 위도 19도 44분, 경도 123도 53분 등 4곳을 낙하예상구역으로 알렸다. /연합뉴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를 표귀가 ▲1단계 동체의 경우 한국 서해 ▲로켓 첨단부는 한국 제주도 남서 해역 ▲로켓 2단계는 필리핀 루손섬 주변 태평양에 해당한다고 3일 분석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발사장을 이용해 남서방향으로 발사할 것이라 얘기다. 특히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궤적을 따를 경우 로켓이 자국 영토인 오키나와(沖縄)현 사키시마(先島) 상공 부근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 미사일 동체 낙하예상구역

· 발사일자 2월8일~25일
· 시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



“ICBM 시험발사 목적”

군사 전문가 분석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이유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한미 군 당국은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지카 바이러스 미국서 성관계 감염 첫 확인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맬리스 카운티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인 베네수엘라

를 다녀온 방문객과 성관계한 한 환자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가 아닌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술향기맑은터.com

술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꿨습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술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